보안 불감증과 금융권 해킹 사고



이 정 희의
西村브리핑

금융권이 연쇄 해킹 공포에 휩싸였다. 은행에서 시작된 사이버 공격이 증권·보험·자산운용사는 물론 가상 자산업계까지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양증권에서도 고객과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긴급 보안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고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금융산업의 근간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재산과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외부 시스템의 취약점까지 침투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기존 보안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문제는 금융권의 안일한 보안 의식이다. 금융당국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보안 취약점 개선과 외부 접점 관리를 주문해 왔다. 그러나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점검에서 130곳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최신 보안 패치 미적용과 노후 시스템 관리 부실, 24시간 보안 관제 체계 미구축 등 기본적인 문제들이었다. 첨단 금융서비스 경쟁에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보안의 기초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격 대상이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외부 그룹웨어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다양한 연결망이 새로운 침투 경로가 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은 확대됐지만, 이를 관리하는 보안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보안 수준이 가장 낮은 연결 지점 하나가 금융회사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결국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임원회의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대형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보안 통제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해킹을 막을 수는 없다.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했는지, 취약점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고 이후의 제재보다 사고 이전의 예방에 무게를 둬야 한다. 형식적인 점검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보안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보안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CEO와 이사회가 보안 예산과 전문 인력 확충을 직접 챙기고, 외부 연결망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접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 징후 탐지와 위협 정보 공유체계도 고도화해야 한다.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에는 공동 관제 체계와 기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에서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고객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돈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금융 거래를 한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도 의미가 없다. 금융권은 이제 해킹을 피할 수 없는 외부 위협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부의 보안 불감증을 돌아봐야 한다.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생존 조건이다. 이번 연쇄 해킹 사태가 금융권의 보안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

/ljnh@metroseoul.co.kr

테슬라·BYD, 판매 돌풍만큼 서비스도 책임져야



기자 수첩
이 승 혁
〈산업부〉

2021년 핀란드에서 테슬라를 고치는 대신 폭파한 차주가 등장했다. 보증이 끝난 모델S의 배터리 교체 견적에 불만을 품은 그는 폭파 전문 유튜브팀에 차량을 맡겼다. 배터리 등을 제거한 차는 다이너마이트 30㎏에 산산조각 났다. 구매의 만족이 수리 단계에서 뒤집힌 극단적인 사례다.

차를 살 때의 만족이 오래가려면 구매 이후의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내에서 빠르게 판매를 늘린 테슬라와 BYD도 새겨야 할 대목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를 합산하면 올해 1~10월 테슬라의 신규 등록은 9만8313대, BYD는 2만1731대다. 두 브랜드의 비중은 전체 수입 승용차 등록의 38.6%에 이른다. 이제는 판매 실적에 걸맞은 서비스 역량을 갖췄는지 돌아볼 때다.

BYD코리아 공식 목록에 오른 서비스센터는 21곳이지만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수도권 4곳과 부산 사상 등 5곳이다. 광주와 대구·대전 등의 거점에는 일반수리만 표시돼 있다. 테슬라는 공식 서비스센터 18곳과 경기 동탄·용인의 자체 사고수리센터를 운영한다. 별도의 공인 정비소도 활용한다. 고객에게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수리를 받을 수 있느냐다.

업체들도 정비망을 늘리고 있다. BYD코리아는 지난달 7일 용인 서비스센터 개소를 알리며 연말까지 서비스센터를 26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날 센터가 지금 수리해야 하는 고객의 불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정비망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 목표를 세우고 물량을 들여올 때 정비 수요도 계산했어야 한다. 판매부터 늘리고 서비스는 나중에 보완한다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준비 비용을 소비자의 기다림으로 대신하는 셈이다.

필요한 것은 간판보다 실제 수리 능력이다. 사고수리 거점의 지역 편중을 줄이고 정비사와 부품을 확보해야 한다. 구매 전에 가까운 센터에서 가능한 작업과 차량 이송 지원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딜러사나 협력업체에 작업을 맡겨도 최종적인 서비스 책임은 해당 브랜드에 있다.

자동차는 인도로 거래가 끝나는 상품이 아니다. 소비자는 수년간 탈 차와 함께 고장과 사고에 대응할 서비스도 산다. 수리할 준비 없이 무작정 판매만 늘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다음 판매 목표를 내놓을 때는 늘어난 차량을 어디서, 누가, 얼마나 빨리 고칠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한다.

/sh95@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6일 (음 9월 2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질병에 시달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세요. **60년생** 매사 동료와 함께 의논하세요. **72년생** 귀인이 찾아와 막힌 일이 풀립니다. **84년생** 노력 뒤에 얻은 재물이라 애지중지 합니다.

소 **49년생** 중요한 서류가 분실되니 그 손실이 큰 법입니다. **61년생** 자식이 속 썩이겠습니다. **73년생**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 입니다. **85년생** 위태로운 하루 입니다. 자중함이 좋겠습니다.

호랑이 **50년생** 큰 일을 도모하기에 앞서 가정을 먼저 돌보세요. **62년생** 동쪽에 인연이 있습니다. **74년생** 서방과 북방은 흉하니 바라보지도 마세요. **86년생** 닭띠, 개띠와의 동업은 그 끝이 보입니다.

토끼 **51년생** 예술 계통의 종사자는 길합니다. **63년생** 해 뜨는 곳이 길한 방향이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75년생** 당신의 손에 맞는 반지는 따로 있습니다. **87년생**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세요.

용 **52년생** 명예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64년생** 허황된 헛된 꿈을 좇기보다는 내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76년생**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88년생** 노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세요.

뱀 **53년생** 다른이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5년생** 언행에 조심해야 합니다. **77년생**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지 마세요. **89년생** 윗 사람과 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54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66년생**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영광을 부릅니다. **78년생**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은 법입니다. **90년생** 모든 문제는 깊게 고민하고 해결하세요.

양 **55년생**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직접 해결하세요. **67년생** 여행수가 보입니다. **79년생** 좋은 집을 얻을 기회니 부지런히 다녀보는 게 좋습니다. **91년생** 뜻하지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8년생** 짭짤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80년생** 술자리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닭 **57년생** 밖으로 나가면 기분 좋은 소식이나 새로운 인연이 기다립니다. **69년생** 신중한 행동을 하면 복이 옵니다. **81년생** 금전거래를 주의하세요. **93년생** 항상 기다려보세요.

개 **58년생** 저녁에 잡는 약속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7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82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4년생**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돼지 **59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71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83년생**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95년생** 치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김상회의 四季

안타까운 수저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수저론이라는 말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어떤 환경의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규정된다는 게 수저론이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면 흙수저라고 부른다. 집안 환경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부모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은 물론이고 취업과 결혼 그리고 주거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하지만 수저론이 널리 퍼지고 그런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현상은 씁쓸하기만 하다.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체념을 만들고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논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는 흙수저라서 그 무엇도 하기 힘들고, 저 사람은 금수저니까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일이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실감할 때가 있다. 어떤 젊은이는 자기가 흙수저인데 사주가 좋다고 인생이 달라지느냐고 묻기도 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나 부모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스스로 흙수저 인생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수저론이 젊은이들 사이에 패배 의식을 심어주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마저 빼앗아버린다는 점이다. 인생을 시작할 때 차이가 있다는 것과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집안이 빈곤하면 살아가는 게 고단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남보다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라고 항상 뒤에서만 달리지 않는 게 인생이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해 의사가 된 사람, 부모 도움은커녕 빚으로 사업을 시작해 큰 자산을 일군 사람도 있다. 자기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수저론에 낙담하지 않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6		5	
6					1	3	7	2
		1		3			8	
	4		7				9	
	7				3		1	
	1			8		5		
8	6	7	4					1
	5		6			7		

7		9	2					3
				5	1			
		1	8				2	
		4	1				5	
8		6				7		1
	5				7	4		
	2				8	1		
			7	4				
4					6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9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